



HANNAH CHOI MINISTRIES

미움

오늘은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2:9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의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이에서 벌어진 억울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늘 부딪치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관과의 관계,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오해와 이해상관의 관계가 지속적인 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는 자신이 미움의 죄와 독소로 부터 해방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평화하고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평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해 보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욱 그를 괴롭히고 그의 마음에 평화는 커녕 미움의 회오리가 더욱 거세어집니다. 저 또한 미움의 독소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괴롭힘을 당했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 상처투성이인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괴롭히는 자의 마음 상태는 송곳으로 찢려진 상처가 수없이 많은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눈엔 괴롭힘을 받는 상대가 한없이 부러운 영혼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가 홍수처럼 넘쳐서 그것을 미움의 상대에게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어서 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움의 죄로 부터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파괴하고 괴롭히는 자에 대한 미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결과이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죄의 각성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17과 18절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훔서 1:7절에는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선(Good)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는 악(Evil)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동기가 모두 선하시다는 뜻이며 하나님은 항상 공의(Justify)로우시며 그분의 계획은 모두 선하시고(창50:20) 모두 옳다(Right)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미움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믿음으로 미움의 대상을 위해 축복하므로 그들도 구원의 반석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